

첨단산업·친환경 공존... '그린시티' 전국 1위에



경상북도 구미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구미시는 기업체 3424개와 근로자 10만4000여명이 일하는 첨단 기업도시다. 시는 기업이 더 나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환경관리에도 신경을 써 친환경적 도시 조성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구미시는 지난 2006년 전국 최초로 시장 직속 기구인 '기업사랑본부'를 출범시켰다. 기업사랑본부의 '기업애로 원스톱 처리시스템'은 회사 하나에 공무원 한 명을 배정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불편·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한다. 매달 '이달의 기업'과 '최고 기업인', '최고 근로자' 등도 선정해 기업의 사기를 높이고 있다.



각종 기업육성자금과 해외 부품 박람회 참가를 지원해 중소기업 경쟁력도 강화하고 있다. 독일 볼프스부르크에는 구미통합협력사무소를 운영해 해외무역사절단을 파견하고, 독일 등 유럽연합(EU) 시장 진출에 힘쓰고 있다.

지난 2011년에는 금오공대가 이전한 부지를 매입해 금오테크노밸리를 조성했다.

이곳에서는 전자의료기와 모바일, 3D프린팅,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대규모 국제사업과 연계한 IT융합산업 연구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구미시는 국가 산업단지 기반을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구미국가5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구미시는 지난해 환경부가 환경관리 우수자치단체를 뽑는 '그린시티' 공모에서 전국 1위에 선정됐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첨단산업과 친환경이 공존하는 도시를 조성해 많은 인력과 기업들이 찾아오는 구미시가 되도록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진혁 조선비즈 기자

지역 농산물 연계... 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호평



논산시는 '기업하기 좋은 논산, 취업하기 좋은 논산'을 표어로 내걸고 목표 달성에 매진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고용률 69.8%, 취업자 수 3.7% 증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4.9% 증가 등 일자리 규모와 질적인 측면에서 모두 개선됐다.

이 같은 결과는 논산시가 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해 시민이 체감하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노력한 덕분이다.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지원책들이 좋은 결실을 맺은 셈이다. 논산시는 동양강철과 모나리자, 한미식품 등 중견 우량기업들의 입주로 파생되는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했다. 지역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과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첫 출근복도 지원하는 등의 세심한 노력을 쏟았다.



지역 농산물의 6차 가공산업과 연계한 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도 호평을 받았다. 이는 도농 복합도시 환경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 사례로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 미취업청년·경력단절여성·노인 등 노동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논산시는 '청년들이 꿈을 이루는 도시'라는 목표도 제시했다. 취업

비즈니스를 제공하고, 첫 출근복도 지원하는 등의 세심한 노력을 쏟았다.

장려금과 청년상업거리조성사업 등 다양한 정책들이 그 예다. 지난해에는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일자리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는 결실을 거뒀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일자리 창출은 가장 중요한 민생 대책이자 효과적인 양극화 해소 방안"이라며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수현 조선비즈 기자

14년연속 보건복지부 '지역 복지평가' 수상 기록



전라남도 영암군이 상생과 화합의 정신으로 더불어 사는 군민의 삶을 실현해오고 있다. 영암군은 민선6기 출범 이후 '하나 된 국민 품요로운 복지영암' 건설이라는 궁정 목표로 군민행복시대 구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노력했다.

민선6기 출범 후 복지 부서는 서기관(4급) 직제의 주민복지실로 격상했고, 주민복지실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맡았다. 지난해에는 복지허브와 맞춤형 복지선 선도 지역을 운영했고, 올해 1월부터는 전 읍면에 맞춤형 복지팀을 확대 시행했다.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찾아가는 복지행정 서비스를 강화했다. 특히 고령화 농촌사회 특성을 고려해 목욕권과 이용권, 100세 시대 능동적 대처를 위한 평생교육,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100원 택시와 1000원 버스 시책까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구현·제공했다.



최대 목표는 군민 행복시대 구현이라고 생각하고 복지과 성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4대 핵심 발전전략(생명산업, 문화관광스포츠산업, 바둑산업, 드론·항공·자동차 부품산업)을 통해 군민 복지를 더 향상시켜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 결과 2016년 보건복지부 지역 복지평가에서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복지허브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을 비롯한 3개 분야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14년 연속 보건복지부 지역 복지평가 수상이란 명성도 이어가고 있다. 전라남도가 평가한 노인기초돌봄사업과 통합사례관리분야에서도 우수기관으로 뽑혀 수상하기도 했다.

전동평 영암면 군수는 "지방자치시대의 처를 위한 평생교육,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100원 택시와 1000원 버스 시책까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구현·제공했다."

최대 목표는 군민 행복시대 구현이라고 생각하고 복지과 성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4대 핵심 발전전략(생명산업, 문화관광스포츠산업, 바둑산업, 드론·항공·자동차 부품산업)을 통해 군민 복지를 더 향상시켜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온혜선 조선비즈 기자

사물인터넷 기능 '오티콘 오픈' CES 혁신상 수상



오티콘(oticon)은 2017년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인 CES에서 '2017 CES 혁신상'을 수상했다. 사물인터넷 기능을 포함한 새로운 기능이 탑재된 오티콘 오픈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기술'과 '웨어러블 기술' 2개 부문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오티콘 오픈 1·2·3은 사물인터넷 기능과 근거리무선통신이 적용된 세계 최초 제품이다. 다른 기기와 연결되고 자동 명령도 수행할 수 있다. 보청기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연동된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집 초인종이 울리면 보청기에서 음소로 알려주는 기능도 있다.

오티콘 오픈에 탑재된 새로운 '뷰룩스' 칩셋은 기존 제품보다 50배 빠른 처리 속도로 소리를 전달한다. 1초 동안 5억개의



명령을 실행하는 등 세밀한 소리도 들을 수 있도록 해준다.

오티콘 오픈 1의 경우 64채널로 보청기 착용자의 주위 소리를 1초당 100회 이상 360도로 파악한다. 이를 통해 소음과 말소리를 더 빠르게 구분하고 소리 크기와 위치, 주파수 특징까지 알아낸다. 덕분에

보청기 사용자들은 여러 사람들과의 대화도 잘 들을 수 있다. 트윈링 기술을 적용해 기존 제품보다 데이터 교환 속도가 4배 이상 빨라졌다. 뇌로 듣는 브레인 하이팅 기술을 강화해 보청기 사용자들의 대화 기억력을 20%, 말소리 이해도를 30% 향상시킨다. 저전력 배터리 장착으로 효율성도 높아졌다.

지난해 세계적인 투자은행 UBS의 시장조사기관인 UBS에비넨스랩은 최근 10여종의 보청기 음질을 분석한 결과 오티콘 제품이 가장 우수하다고 발표했다.

오티콘 코리아는 오티콘 보청기, 스위스 버나폰 보청기와 함께 세계적인 청각 전문 기업 윌리엄 디만트 홀딩 그룹에 소속돼 있다. 보청기와 청각장비, 청취 보조장비를 비롯해 달팽이관에 이식하는 전자 장치인 인공 와우까지 다루는 토털 청각 솔루션 기업이다.

최문혁 조선비즈 기자

LED 빛·진동으로 착용만 해도 뱃살 비만 해소



루미다이어트는 다블에이치가 지난 2년간 연구개발(R&D)을 통해 라이트 테라피 기술(LFRT : Light Fat Reduction Technology)과 다이어트를 접목한 스마트 웨어러블 다이어트 벨트다. 루미다이어트는 개인용 건강 관리 제품으로 팔광다이오드(LED) 빛과 진동으로 착용 시 복부 지방이 분해·연소돼 뱃살 비만을 해소해준다.

루미다이어트는 지난해 12월 CJ오쇼핑 론칭 방송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11회 연속 매진 기록을 이어갔고 헬스케어 분야 최대 기간 최고 매출 기록도 세웠다. 다블에이치는 지난해 6월에도 미국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인디고고에 출시한 지 3일 만에 '슈퍼 얼리버드' 관판

과 목표액을 뛰어넘는 선주문을 기록했다.

루미다이어트는 지난해 7월에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코스모프포프 전시회, 9월에는 로스엔젤레스에서 열린 럭셔리 테크쇼에 출품했다. 올해에도 유명 할리우드 시상식인 제 48회 이미지 어워드에서 공식 웨어러블 벨트로 선정되며 할리우드 연예인들에게 선물로 지급됐다. 다블에이치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스타트업 지원 전문기관 K-ICT 본부 글로벌센터의 회사사로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 입주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받고 있다.

이경한 다블에이치 대표는 "루미다이어트 국내 시장은 물론 미국과 유럽, 동남아시아까지 진출해 글로벌 브랜드로 입지를 넓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고윤 조선비즈 기자



아기 의류·용품서 생활공간까지 토털 코디네이션



아동복계의 '샤넬'. 보령메디앙스의 프리미엄 유아패션 브랜드 '타티네 쇼콜라'를 두고 하는 말이다.

타티네 쇼콜라는 유아전문 디자이너 브랜드로 지난 1977년 프랑스에서 캐서린 팡방(Catherine Painvin)이 설립했다. 국내에는 지난 2004년 들어왔고, 영국과 미국, 독일, 일본, 태국 등 50여개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타티네 쇼콜라(Tartine et Chocolat)는 아기 의류와 용품, 생활 공간까지 제공하는 토털코디네이션 브랜드다. 브랜드 이름처럼 아이들에게 버터빵과 초콜릿을 주는 엄마의 따뜻한 사랑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타티네 쇼콜라가 수십년 동안 세계적으로 사랑 받은 까닭은 유행에 휘둘리지 않고 시대를 초월한 클래식하고 합리적



인 전통 명품을 추구한 덕분이다. 파스텔 계열, 비비드 계열, 레이스와 자수 등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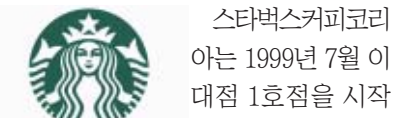
보수적이면서도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추구한 브랜드다.

보령메디앙스의 타티네 쇼콜라는 브랜드 고우 컨셉트를 바탕으로 매 시즌마다 국내 감성과 유행을 접목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최근에는 프랑스 생제르맹 거리에 있는 본사 쇼룸 컨셉을 그대로 적용한 브랜드 매장을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선보였다.

타티네 쇼콜라는 매장에서 출산용품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출산과 육아 전반에 걸친 육아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해 주는 출산 준비 상담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온혜선 조선비즈 기자

나이트로 콜드 브루 히트... 지역 일자리 창출 앞장도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1999년 7월 이대점 1호점을 시작으로 성장을 거듭해 2016년 12월 오픈한 청담스타점 1000호점까지 모든 매장을 직영하고 있다. 40년 이상의 전문적인 로스팅 기술과 철저한 품질 관리, 자체 양성한 1만여명의 숙련된 바리스타들은 스타벅스를 차별화한 원동력이다.

스타벅스는 최상급 원두와 다양한 추출 기구를 직접 선택해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커피 포워드 매장을 늘리고 있다. 새로운 음료인 콜드 브루 커피를 비롯해, 티고유의 향과 맛을 현대적으로 차별화한 타바나 브랜드를 도입하며 국내에 새로운 음료 트렌드를 만들어냈다. 올해 3월 출시한 나이트로 콜드 브루는 혁신적인 아이스 커피라는 평을 받으며 새로운 커



피 경험을 전달하고 있다. 스타벅스의 혁신적인 O2O(Online-

to-Offline) 서비스인 사이렌 오더는 누적 이용횟수가 1500만건을 돌파할 정도로 반응이 좋다. 고객 만족 서비스 프로그램인 마이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수는 300만명을 돌파했다. 스타벅스는 국내 특산물을 활용해 제품을 현지화하려는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다. 국내 협력사와 함께 음료와 원·부재료의 자체 개발을 확대하고 있으며, 국내 특산물을 활용한 음료를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과 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모든 판매 품목당 300원을 적립해 대학생들에게 4년간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청년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7000여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진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소년 진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성민 조선비즈 기자